

KTX 호남선 개통 코 앞 광주 ‘3대 악재’ 넘어라

- ①광주역 진입 놓고 찬반 논쟁
- ②의료·교육·쇼핑 역의 유출
- ③서대전역 경유 저속철 위기

市,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개통을 2개월 앞둔 호남고속철도(KTX·서울~광주)가 ‘3대 악재’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광주간 1시간대 이동으로 ‘전국 만나질 생활권’이 기대됐던 KTX는 최근 ‘서대전역 경유’라는 복병을 만나 ‘2시간대 저속철’로 전락할 위기가. 또한 KTX 개통과 밀접한 의료, 교육, 쇼핑 산업 등에 대한 대책도 미흡해 지역 경제가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이른바 ‘역류(빨대) 효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정부에 서대전역 경유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대전·충남에서 수년 동안 서대전역 경유 논리를 전개하는 동안 KTX 광주역 진입 등을 놓고 지역 내 분열만 자초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호남고속철 회의’를 열어 노선에서 광주역을 제외하고, 대전시의 요청에 따라 전체 편수 중 20%를 서대전역으로 경유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서울~송정 간 고속철 가운데 오송~익산 구간은 일반 선로인 오송~서대전~계룡시~익산 구간으로 우회하게 되며, 거리는 32km 늘

어나고 운행시간도 45분 추가된다.

결국 일부 KTX는 서울~광주 운행 시간이 기존 1시간33분에서 2시간18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대전시와 충남도는 전체 편수 중 50%를 서대전역으로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마저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최종 노선을 확정할 예정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 등이 공동으로 ‘서대전역 경유 반대’를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의 KTX개통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민의 우려가 깊다.

KTX호남선의 거점역이자 서남권 물류의 중심지가 될 송정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광주시가 각 부서별로 마련 중인 KTX대책도 수년째 골프상품, 시티투어버스 등 기존 사업만 나열·보완하는 등 ‘뚝구름 잡기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쇼핑, 의료, 교육 분야의 수도권 역류 현상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전무하다. 광주보다 10년 일찍 KTX가 개통된 대구·울산의 경제가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현상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지역 내 관련

산업 종사자의 걱정도 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민선 6기들어 6개월 만에 담당 간부(과장)만 2차례나 교체해 관련 업무의 연속·전통성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KTX광주역 정차 문제 등을 놓고 광산구와 동·북구 지역간 갈등만 키우는 등 무사안일한 행정만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 잡아야 당권 잡는다” 朴·文·李 불꽃 경쟁

(지원) (재인) (인영)

새정치 당 대표 후보들

광주·전남서 지지호소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가 중반 전에 접어들 가운데 18일 당 대표 후보들은 ‘뒷밭’이자 최대 승부처인 광주·전남에서 호남 당심(黨心)을 잡기위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날 광주와 전남 시도당 대의원 대회에 잇따라 참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뒷밭’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관련기사 3·4면〉

야당의 심장부이자,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다 이날 행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어 전대 레이스의 남은 판도를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들은 막판 세물이에 집중했다.

특히 광주가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번 연출로 ‘노풍’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을 기억하는 각 후보들은 승기를 잡기 위해 지역 당원들과의 접촉 면을 넓혀나갔다.

호남 출신인 박지원 후보는 일단 선거 패배로 부글부글 끓는 지역 정서를 달래면서 계파 갈등과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대권 주자가 아닌 자신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문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박 후보는 전대 레이스가 중반전에 접어들어 만큼 호남을 발판삼아 세물이를 가속하겠다는 전략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당면 과제인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있는 ‘간판스타’가 당의 얼굴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로 호남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을 대표하는 이인영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앞세워 호남 당심을 공략하며 진



같은 자리 다른 시선 18일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박지원·이인영·문재인(왼쪽부터) 당 대표 후보가 서로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당위원장 박해자·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 선출

노·비노의 갈등, 영·호남 지역을 극복하기 위한 세대교체를 강력 주장했다.

이날 ‘호남 대회전’은 박 후보가 문 후보 측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캠프 간 신경전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를 상황 속에서 양측 지지자들의 연호도 크게 엇갈리는 등 호남에서 ‘승기 잡기’를 위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유승희·박우섭·문병호·이목희·정청래·주승용·전병헌·오영식 후보 또한 이날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이 가운데 호남 출신 국회의원인 주

승은 의원은 “호남 소외를 이겨낼 수 있도록 호남 당원들이 지지해달라”면서 “호남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광주시당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단독 입후보한 박해자(광주 서구갑) 의원을 차기 시장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열린 전남도당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황주홍 의원이 이윤석 의원을 누르고 차기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황 의원은 유효투표 1만2508표(ARS 1만1853표, 현장투표 655표) 중 ARS 5623표, 현장투표 366표(득표율 51.7%)를 얻어 48.3%를 받은 이윤석(무안·신안) 국회의원을 간발의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정든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배워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약력

- 광주실례시(26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89학번) 졸업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인천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산지검 검사
- 의정부지검 특수전담 검사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 광주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 서울서부지검 특수전담 검사
-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검사
-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
- 부산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에서원 대표변호사 이 경 수 올림

- 업무개시 : 2015. 1. 2(금)
- 업무정소 : 광주 동구 지산동 342-13 심산빌딩 401호
- 대표전화 : (062)229-7500
- 팩스 : (062)229-7007
- 개업소면 : 생략합니다

순천에 18만㎡ 도시첨단산단 조성

무안공항 비행훈련원 들어서

순천에 공공·민간 연구소, 첨단기업이 집적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전남지역 섬과 해안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제특례 및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안공항에는 한국공항공사

의 비행훈련원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신규 조성, 도심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 공동도시재생, 서비스산업·항공정비산업(MRO) 입지 지원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 입지를 전국에 확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 주변환경과 연계, 전시·박람회(MICE) 산업 유

치를 통해 연구·비즈니스 지원 중심단지로 조성된다. 순천시 아흥동에 18만㎡ 규모로 조성되는 첨단산단은 광양만권, 여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 개발될 예정이다. 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새로 도입하면서 전남지역 섬·리조트식 해안 등의 개발 가능성도 커져 전남의 ‘가고 싶은 섬’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뒷받침된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복 70년

3·1마라톤 50년

60년 호남예술제

광주일보가 함께 합니다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고창웰파크시티로 가족 여행 떠나자!

게르마늄 온천수로 만든 인공눈썹매장에서 신나는 눈썹매를!

향토벽돌, 편백나무와 한지로 마감한 건강향토펜션에서 아늑한 휴식을!

신비의 게르마늄 온천과 물놀이 시설에서 삼대(三代)가 잊지 못할 추억을!

분양 [063]563-9300 힐링카운티(펜션) [063]560-7300 석정휴스파(게르마늄 온천) [063]560-7500

고창웰파크시티 내 운영 시설_ 힐링 카운티(건강향토휴양펜션), 석정 휴(休)스파(게르마늄 온천), 석정 눈썹매장, 피트니스센터, 연회장, 석정힐스(골프빌라)

고창웰파크시티와 함께 할 인재를 모십니다

▶모집부문

- 분양 경력직 : 실버타운 / 아파트 / 상가
- 영업 경력직 : 리조트 / 레저
- 객실 지배인 : 콘도 / 펜션
- 하우스 키퍼 : 콘도 / 펜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년 1월 31일(채용시 마감)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처

- 우편: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173 고창웰파크시티 통합사무실
- E-mail: huespa@naver.com

▶문의처: 063)560-7581 경영지원실 인사팀

(주)서울시니어스 엠앤에스